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체육 선수단이 선전을 다짐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남체육 선수단이 선전을 다짐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스포츠 꿈나무 한마당 '제55회 전국소년체전' 23일 팡파르

광주, 체조 채원재 2연패 도전...진고는 등 광주체육 선전 기대 전남, 육상·태권도·바둑 등 활약 예상...메달 85개 이상 목표도

전국 스포츠 꿈나무들의 축제인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국소년체전은 부산 주아시아드경기장 등 55개 경기장에서 40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된다.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12세 이하부와 15세 이하부로 나뉘어 열린다.

광주는 이번 대회에 37개 종목 1090명(선수 662명·임원 428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목표는 총 70개(금 14·은 16·동 40)의 메달 획득이다. 동계

훈련을 통해 기량을 끌어올린 광주 학생 선수들은 전국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겠다는 각오다.

먼저 기계체조에서는 최원재(광주시체육회)가 평행봉 종목 2연패에 도전한다. 그는 지난해 남자 12세 이하부에서 2008년 이후 17년 만의 4관왕에 오르며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바 있다. 역도의 진고는(광주체육 3년)은 3관왕 후보로 기대를 모은다.

개인 종목에서도 기대주들이 출격한다. 복싱 김준재(광주체육 3년), 레슬링 전제준(광주체육 3년), 양궁 김준서(광주체육 3년), 사격 허동원(광주체육

3년) 등이 광주 대표로 메달 사냥에 나선다.

단체 종목의 기대감도 높다. 지난 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신광중학교 소프트테니스팀은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농구 문화중, 핸드볼 조대여중, 하키 송광중, 소프트테니스 금호중 역시 지난 대회 동메달 이상의 성과를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와 함께 김도 서석중, 럭비 무진중, 배구 차평초와 문홍중, 야구 수창초와 무등중도 광주 대표로 출전해 지역의 명예를 걸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시체육회장은 "광주 대표선수라는 자긍심을 갖고 그동안의 노력이 값진 성과로 이어질 바란다. 결과보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도전정신과 성장의 경험이 삶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광주의 미래 체육인들이 부상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도 최

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남에서는 38개 종목에 1311명(선수 810명·임원 501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이들은 금메달 19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50개 이상 획득을 목표로 한다. 전남은 육상과 태권도, 복싱, 씨름, 바둑 등을 금메달 기대 종목으로 꼽고 있다.

육상에서는 한지수(여수시전초 6년·포항단기), 이라임(장성중앙초 4년·80m), 김강석(전남체중 3년·1500m)이 기대를 모은다. 태권도에서는 주재홍(무안해제초 6년·38~42kg), 강현우(보성초 6년·54~58kg), 윤서진(무안북중 2년·41kg)이 금빛 발차기를 준비하고 있다.

복싱에서는 김도완(웰터급)과 박주현(보성중 3년·라이트밴텀급)이 우수 후보로 거론된다. 씨름에서는 조호진(순천이수중 3년·경장급), 정우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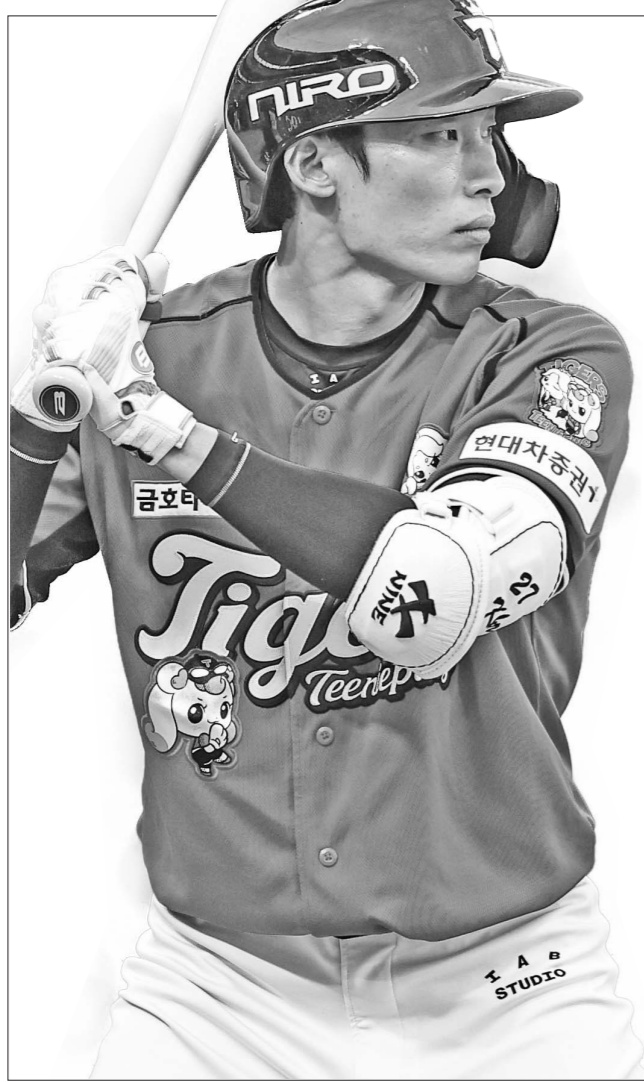
(순천팔마초 6년·소장급)이 정상에 도전한다.

바둑 종목도 강세가 기대된다. 남·여 U-15 단체전 금메달을 노리는 가운데 여자 U-15 단체전은 대회 5연패에 도전한다.

이밖에 김도 남 U-15 단체전, 하키 U-15 단야중, 핸드볼 남 U-15 무안북중 등의 활약도 기대된다. 사격 남 U-15 공기권총 단체, 수영 임지율(여수한려초 6년·자유형 100m), 테니스 김예을(강진동초 6년·개인전), 레슬링 김호련(전남체중 3년·그레코로만형 71kg)도 메달 기대주로 꼽힌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강화훈련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며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값진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데뷔 첫 3홈런' 김호령 "어린 선수 활약 자극"

LG전 4타수 4안타 3홈런 맹활약으로 승리 견인 김성한·이종범·이범호 등과 타이거즈 홈런 역사

"(박)재현이나 (박)상준이가 해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네요."

KIA타이거즈 외야수 김호령이 생애 최고의 하루를 보내며 구단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데뷔 후 처음으로 한 경기 3개의 홈런을 몰아치며 타이거즈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김호령은 지난 1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LG트윈스와의 주중 1차전 경기에서 6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4안타 3홈런 4타점 4득점의 맹타를 휘둘렀다. KIA는 김호령의 대폭발에 힘입어 LG를 14-0으로 완파했다.

시작부터 예상하지 않았다.

2회말 첫 타석부터 안타를 때려낸 김호령은 4

회말 대형 타구를 쏘아 올렸다. 직전 타석 1사 1루 상황에서는 나성범이 투런포를 터트렸다. 타석을 이어받은 김호령은 상대 6구째 150km 직구를 그대로 받아쳐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백투백 홈런을 완성했다.

첫 홈런으로 자신감을 얻은 그는 이후 거침이 없었다.

7회말 1사에서는 상대 2구째 123km 커브를 받아쳐 중앙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또 8회말 무사 1루에서는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포를 폭발시켰다. 개인 첫 안타석 홈런이다. 특히 이 홈런으로 개인 한 경기 최다 3홈런 기록을 완성하기도 했다.

타이거즈 역사상 한 경기 3홈런은 김성한, 장

재근, 이종범, 샌더스, 김상현, 이범호에 이어 김호령이 7번째다. 2018년 이범호 이후 8년 만에 나온 진기록이다. 타이거즈 역사상 한 경기 4홈런 기록은 아직 없다.

김호령은 경기 후 "말로 표현을 못 할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다"며 "첫 타석에서는 행운의 안타가 나왔다. 이후 두 번째 타석에서 홈런이 나오면서 감이 좋아졌다. 이후에는 편한 마음으로 타석에 들어간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웃었다. 이어 "세 번째 홈런을 쳤을 때는 느낌이 좋았다. 좋은 타구는 예상했지만, 홈런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김호령은 이날 또 타격 부진에 시달렸다. 4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치며 하위 타선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타격감을 회복하며 반등 조짐을 보였고, 이날 결국 폭발했다.

그는 코칭스태프와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반등 기회를 잡았다.

김호령은 "타격이 안 좋을 때 코치님과 정말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영상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짚어주셨고, 타석에서 너무 급하고 손이 빨리 나가는 부분을 계속 수정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김호령은 43경기에서 타율 0.294 OPS(출루율+장타율) 0.851을 기록 중이다. 이미 지난해 기록했던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6개)을 넘어 7홈런을 쏘아 올렸다. 데뷔 첫 두 자릿수 홈런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의 활약과 함께 팀 또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호령은 박재현, 박상준, 정영창, 박민 등 어린 후배들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박)재현이랑 (박)상준이가 너무 잘한다. 확실히 내가 안될 때 어린 친구들이 해주니까 편하게 칠 수 있다"면서 "(정)영창이나 (박)민 등 어린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나도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에서 (김)선빈이 형과 (김)도영이가 잘해주다 보니 하위 타선에서는 마음 편하게 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앞 타순에 들어가도 팬잡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집중

48명 대상 완주·금산서 교육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등 운영

전남 장애인생활체육 현장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오는 22일까지 전북 완주군과 충남 금산군 일원에서 '2026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은 도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도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자기 진작은 물론, 지도자 간 정보 교류와 우수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전남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첫날에는 완주군다비체육센터를 찾아 시설 운영 현황과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살폈다. 참가자들은 선진 장애인체육시설을 직접 체험하며 현장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 구성 등을 공유했다.

둘째 날에는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장애인 파크골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22일까지 전북 완주군과 충남 금산군 일원에서 '2026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제공=전남도장애인체육회

프 규칙과 장애 유형별 지도 방법에 대한 이론·실기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현장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해 장애 특성에 맞는 지도 기법과 실제 수업 운영 사례를 나누고, '2026년 장애인스포츠 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한 대비 교육도 병행한다.

이번 교육 종목은 사전 지도자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돼 현장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마지막 날에는 대둔산 케이볼가 체험과 등반 활동, 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 문화탐방 등 힐링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이를 통해 지도자들의 체력 증진

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 내 유대감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측선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장애인생활체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이번 역량강화 교육이 실질적인 지도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찐팬' 연예인 총출동...KIA, SSG전 릴레이 시구

22일 배우 조승희· 23일 트리플에스 서아·채원·24일 NCT WISH 시은

KIA타이거즈가 SSG팬더스와의 주말 3연전에 '찐팬' 연예인을 초청해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KIA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SSG와의 홈 3연전에 배우 조승희, 걸그룹 트리플에스(tripleS) 멤버 서아·채원, 보이그룹 NCT WISH 멤버 시은을 시구·시타자로 초청한다고 20일 밝혔다.

3연전 첫날인 22일에는 배우 조승희가 시구자로 나선다. 걸그룹 다이나믹 듀오 출신인 조승희는 배우로 활동 중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승희는 "고향 광주를 대표하는 KIA타이거즈와 함께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선수들과 팬 모두에게 좋은 에너지와 즐거움 순간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23일 경기에는 트리플에스 멤버 서아와 채원이 각각 시구와 시타를 맡는다. 광주 출신인 서아는



평소 SNS를 통해 KIA를 향한 팬심을 드러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 시리즈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NCT WISH 멤버 시은이 마운드에 오른다. 평소 남다른 팬심으로 KIA '찐팬'임을 보여준 시은은 이번 시구를 위해 3년 연속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시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항상 응원하는 팀인 KIA 타이거즈의 시구를 할 수 있게 돼 영광이고 감사하다"며 "올해는 꼭 승리해서 '승리 요정'이 될 수 있도록 팬들과 함께 힘차게 응원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송하중 기자 hajong2@